

우리 廣州金氏는 鷄林의 闕知 大輔公의 後裔로서 燦然한 新羅千年의 歷史를 지녀온 新羅 마지막 王인 敬順大王의 다섯째 아들이고 樂浪公主의 次子인 錫公을 元始祖로 모시고 公의 七世孫인 諱 祿光祖가 高麗高宗朝二三年에 廣州君을 封하게 되니 祿光公을 始祖로 모시고 廣州金氏가 發祥되었다.

우리 先代는 科宦 文學, 武勳, 隱逸 등의 各分野에서 歷代로 國家와 民族에게 忠血로써 이바지 하였었고 嶺南系에서는 密陽, 東萊 在北韓에는 鐵山, 定州, 德川 黃海道地方에서 많은 族儀가 集團의 居住하고 있으며 모두 鄉中에서 望族으로서의 位置를 차지하고 繁榮盛勢하고 있다.

이는 오로지 우리 祖先의 陰德과 忠義를 信條로한 世德의 傳家 遺産이라 하겠다.

始祖 祿光公을 爲始한 上系의 數代는 高麗史에서 史記를 찾아볼 수 있으나 李太祖 建國以來 高麗忠臣들의 沒落과 日帝搾政 및 六·二五 勤亂等으로 國土의 兩斷에 따라 文獻과 史料가 保存되지 않아서 考證의 인 많은 資料를 蒐集收錄하지 못하고 本史鑑을 發刊하게 된것을 遺憾하게 生覺하나 한편 北韓에 있는 先賢의 事蹟과 傳說이 越南한 族儀의 머리속에서 口傳되고 있을뿐이고 아울러 先代의 遺蹟 및 文集 등이 漢文으로 되어 있어서 後孫들에 傳承시키기 위해서는 現代文으로 翻譯함과 同時에 宗事를 잘 알아 研究하는 分들이 高齡임으로 生前에 先賢의 遺蹟 및 文獻을 網羅收錄하는 것은 一門의 歷史를 전하는 課業이라 하겠다. 따라서 後孫들은 先代의 遺志와 忠孝의 信條를 繼承하여 一言一動이 先人에게 累가 됨이 없이 할뿐 아니라 廣州金氏의 衿持를 갖고 先賢들을 빛내고 後孫들에 龜鑑의 인業蹟을 쌓아 남겨야 할 것이다.

本 史鑑은 一門의 文獻이긴 하나 우리 民族史, 氏族史의 一部가 될것이므로 一般에게도 多少의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라고 江湖諸賢의 많은 利用을 바라마지 않으며 體制와 內容에 있어서 未備한 점이 많고 誤謬도 없지 않을것으로 思料되오니 是正해 주시기를 바라고 後日補完할 機會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原文을 번역해주신 史學家 金龍國氏와 上系資料를 調査해주신 譜學者 金英根氏 그리고 本 史鑑發刊에 精誠껏 協助해주신 牙山蔣氏宗親會 蔣弼在會長에 深甚한 感謝를 드리고 資料提供과 本書發刊에 物心 兩面으로 協助해주신 宗親諸位의 勞苦에 對하여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一九八一年 四月 日

廣州金氏史鑑編纂委員長

在京廣州金氏宗親會長

成均館典學

蘇峰金相立

序 文

國民은 그 나라 國史를 創造하고 民族社會에 있어서의 門中의 發展과 先代의 事蹟을 保存하여 後孫들에 길이 傳承시키는데는 血統의 矜持를 涵養하는 宗史라 하겠다.

今般 廣州金氏宗中에서는 先代를 빛내고 後孫들에 龜鑑이 되는 廣州金氏史鑑을 發刊한다는 것은 참으로 意義가 클뿐 아니라 致賀해 마지않는 바이다.

廣州金氏는 史的으로 살펴보면 新羅 敬順王의 後裔로서 高麗 高宗朝에 金祿光先生이 廣州君으로 封爵됨으로 廣州金氏가 發祥되고 二代의 金暉先生이 聖節使의 書狀官으로 元나라에 있을 때 林衍이 王을 廢하고 새로 세울 때 할 때 元나라 皇帝에 上疏하여 國亂을 鎮壓하였고 또 三別抄가 叛하여 慶尙道로 向하려 할 때 金州防禦使로서 이를 막으니 道內가 平安하게 되며 그功으로 金州를 金寧府로 昇格하고 金暉先生을 都護府使로 任命하여 鎮守케 한 바도 있고 또 忠宣王이世子로서 元나라에 있을 때는 春宮侍讀官을 지냈으며 政堂文學에서 贊成사가 되어 國政에 크게 이바지한 家門이라 하겠다.

九代孫인 襄武公 金太虛先生은 壬辰倭亂時에 救國의 拔勳을 세워 宣武原從一等功臣과 襄武公의 謚號와 神道牌을 下賜받았고 또 矩翁公 金太乙先生은 文學과 修身으로 名聲이 높은 嶺南의 儒賢이고 또 湖叟公 金琦先生은 壬辰亂時 倡義救國하다가 殉國하여 宣武原從二等功臣으로 安樂書院(現 忠烈祠)에 享祀하여 길이 빛내고 있으며 또 海叟公 金禹鼎先生은 經典과 賢傳을 글로만 읽을 뿐 아니라 이를 實踐躬行하며 父母에 孝道하고 나라에 忠誠함을 人間의 根本으로 하여 四書經典을 널리 講論하여 儒學界에 새로운 氣風을 振作하여 많은 門下의 德行人士를 輩出시키며 教育報國에 生涯를 마치니 仁祖朝에서 先生의 功勞를 致賀하고 敦寧府都正을 贈職하였으며 東萊府使 姜侳가 先生의 遺德을 追慕하기 위하여 鄉中 士林과 官의 合力으로 東萊에 鄉敬齋를 建立하고 士林이 享祀하고 있음은 先生의 蔭德을 길이 傳承시키는 것이고 또 九峯公 金守謨先生은 學書에 뛰어나고 百行之孝가 師表로 推仰받았으며 光海君 政亂時에는 先生께서 黨派紛爭이 빚어낸 光海君의 廢母、戮弟 등의 悖倫을 바로 잡기 위하여 上疏하고 批答을 大望하였으나 反映이 없어서 明倫堂上 未明倫하니 不若歸家老此身이라 一片丹衷無地訴하니 出門只有淚沾巾이란 憂國表情의 恨을 詩로서 남기고 明倫堂을 떠남은 儒學의 偉大한 精神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많은 文武의 名賢이 한門中에서 輩出되었다는 것은 廣州金氏의 자랑이라 하겠다. 後孫들은 先代의 偉大한 忠孝思想을 본받아 앞날에 繁榮과 幸運 있기를 비는 바이다.

一九八一、四、

成均館長

李

載

瑞

우리 廣州金氏는 新羅 敬順王의 後腐로서 諱 祿光을 始祖로 모시고 姓貫하여 7百50年 綿綿이 빛나게 이어 내리고 있다.

우리 廣州金氏의 뿌리는 王家에서 分貫하여 忠孝를 바탕으로 하였으므로 그 後代는 永遠하고도 燦然한 歷史가 創造될 것이나 國土의 兩斷으로 宗族間의 生死와 先代의 事蹟을 알 수 없는 것을 遺憾之事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嶺南系는 諱 叅始祖의 長子의 四世 諱 南物祖께서 安東府使를 지내고 曾孫인 諱 次文祖와 諱 次武祖 兄弟中 諱 次文祖께서는 工曹參議로서 東萊地方에서 世居하시고 諱 次武祖께서는 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을 歷任하시고 公의 아들 諱 礪祖께서 掌隸院判決事、戶曹參判同知禁府事를 지내고 密陽에 世居하게 되니 東萊와 密陽에 集團적인 本據가 되었다 하겠다.

우리 廣州金氏의 嶺南系는 嶺南宗族이 全部인줄 알고 있었는데 6·25事變으로 因한 越南宗親을 相逢하게 되니 黃海道出身宗親은 諱 叅始祖의 次子인 諱 開物祖의 後孫으로서 繁榮盛勢하고 있음을 알게 되고 또 平安北道의 鐵山出身의 宗親들은 諱 兗祖를 派祖로 하여 關西地方의 廣州金氏로서 大宗을 이루고 있고 또 平南道出身의 宗親은 高麗朝末에 副提學을 歷任한 諱 秀海祖를 派祖로 하고 있으며 또 寧邊 定州의 宗親은 諱 鋏祖를 派祖로 하여 繁盛하고 있으므로 北韓에도 많은 廣州金氏가 살고 있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越南한 宗親들이 族譜나 文獻를 持參하지 못하였으니 根源을 對照할 수 없는 實情임으로 앞으로 考證에 依해서 解決되어야 할 重大한 血系의 研究課題라 하겠다.

今般 서은宗親會에서 많은 勞苦를 아끼지 않고 資料와 考證을 通해서 우리 廣州金氏의 根源과 祿光祖의 아들 諱 閔祖가 監察御史을 지낸 것을 諱 叅 祖의 自撰墓誌銘에서 發見하고 諱 叅 祖가 贊成事를 지낸 것은 高麗史에 記錄이 있음을 알게 되어 上系에 對한 血統을 體系化하니 後代에 부끄러움이 없겠다.

多幸하게도 廣州金氏史鑑編纂委員會에서 많은 史料와 事蹟을 蒐集하여 上系를 定立하고 또 先代의 遺蹟 遺稿 및 事蹟을 後孫들이 알기 쉽게 總網羅하여 現代版으로 發刊하게 된 것은 우리 血族의 큰 자랑이라 하겠으며 相立 委員長과 編纂諸委員의 勞苦를 깊이 致賀하고 우리 宗親들은 本史鑑을 깊이 잘 保存토록 하여 廣州金氏의 보람을 갖기 바란다.

一九八一年 四月 日

全國廣州金氏宗親會名譽會長
嶺南系代表表

金正煥

序 文

悠久한 歷史의 흐름속에서 우리 廣州金氏의 宗族도 於焉間 七五〇餘年으로 흘러서 오늘에 이른것이다.

宗族이란 한그루에서 싹이터서 일萬가지로 뻗어나무나 한 섬에서 솟아서 일 천 골짜기로 흐른 물과 같으며 뻗고 솟아 흐르는 經路는 風雨와 潭害에 따라 꺾이기도 하고 구부러지기도 하며 구불구불 溪谷을 따라 흐르기도 한것 처럼우리 先賢들의 世代를 내려오는동안 나라에 보람된일과 後孫들에게 자랑할만한 業蹟을 남기신것도 많은 것이다.

이는 오로지 始祖諱祿光公을 비롯해서 闕公, 南物公, 開物公, 銛公, 秀海公, 그리고 中代에 이르러 襄武公, 九峯公, 湖叟公, 海叟公, 月谷公, 같은 先賢들의 史話가 滿發하게 傳해지고 있으며 昭公, 開物公, 같은 先賢은 高麗史 一〇六卷 忠烈篇에 길이 빛내고 있으며 襄武公, 九峯公, 海叟公은 壬辰亂 및 光海政亂當時에 忠血로 나라에 바친 國家의 巨星이고 矩翁公, 海叟公, 月谷公은 當代의 文人으로서 人間의 規範과 行할바를 널리 啓導하고 儒學者로서 많은 文集과 遺稿를 남기셨다.

이런것을 總蒐集해서 後世에 傳하고자 이번에 廣州金氏史鑑을 發刊하게 된것인데 이는 여러 宗員들과 더불어 至上的榮光으로 思料됨과 同時에 後代에 길이 빛이 될것이다.

우리 宗員들은 이 史鑑을 熟讀 하며 先代의 遺志를 깊이 간직하고 廣州金氏의 矜持를 가져야 할것이고 또 後代에 길이 길이 傳來 保存토록 해야 할것이다.

이 廣州金氏史鑑 發刊을 도맡아 受苦 編纂한 相立 委員長에게 먼저 머리 숙여 感謝하며 아울러 이 冊 發刊을 위해서 基金을 喜捨해 주신 여러 宗賢에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

一九八一年 四月 日

全國廣州金氏宗親會長
八九陵黃海系代表

金 元 模

序 文

新羅千年의 燦然한 歷史는 우리 廣州金氏를 꽃피웠다.

우리 中祖인 秀海公 할아버지는 高麗朝에 副提學의 要職에 계시다가 李成桂政亂으로 高麗祖 忠臣들이 모두 各地로 避亂할 當時 近族과 같이 平壤外城에 亡命 하셨다가 얼마 後 德川郡에 移居 定着하시니 一名 德川派라 하였다.

德川郡은 平壤東北方 九〇km 地點에 位置하고 있는데 山紫水明하고 產物이 豊富한 地方이다. 李成桂政亂으로 亡命한 關係로 李氏朝에는 버슬할 생각은 없고 土班으로 지내며 養牛作農하고 後進들에 對해 晝耕夜讀을 시켜 巨儒를 많이 輩 出し켰으며 公의 曾孫인 礪成公의 墓所는 現在 德川郡城陽面고정리 山麓에 安直되어 있고 後孫은 無慮數百戶에 達하였 는데 解放後 越南한 族義는 約三〇餘戶로서 現在 主로 서울에 居住하고 있으며 解放後에 越南한 長派 振聲公의 近族들 도 서울에 集約居住하고 있다.

그리고 公의 後孫들은 平安道各地에 分散居住하게 되었는데 차츰 繁盛하여 平壤江西 順安, 肅川, 安州, 价川, 楚山, 江界郭山等地에 많이 居住하고 있는 것으로 推想되나 生死를 알수 없으니 怨歎스럽기만 할뿐이다.

우리 越南한 秀海公 後孫들이 孤寂을 풀고 自慰하기 위하여 假派譜를 編纂하고 生死記錄을 남겨서 앞날 南北이 統一 되면 合議의 資料가 되도록 發行한바 있으나 多幸하게도 在京廣州金氏宗親會의 發足 契機로 많은 宗員들과 相面하여 繁昌한 血系를 알게되니 반가운 마음 限量이 없다.

더우기 今般 廣州金氏史鑑을 發刊하게되니 앞날의 크나큰 史料가 될뿐 아니라 祖國統一의 뿌리 찾는 基本이 될것을 생 각하니, 感謝한 마음과 기쁨을 禁할 길이 없다.

本史鑑發刊을 위하여 많은 資料의 蒐集과 先代의 遺業, 遺跡을 發掘하여 編纂한 相立 委員長과 編輯委員 諸位의 勞苦를 깊이 感謝드리는 바이다.

一九八一年 四月 日

全國廣州金氏宗親會副會長
德川秀海公系代表

金 勝 文

序 文

우리關西에 있는 廣州金氏는 諱兌祖를 中始祖로 하여 出發하였으나 上系는 燦然한 文化를 創造하신 新羅千年의 歷史를 지닌 王子王孫으로 이어온 金枝玉葉임을 自負하는바이다。關西에 있는 鐵山中心의 廣州金氏는 高麗王朝時에 黃州에서 北上하여 現平安北道鐵山 西林面檜木里(現檜塘洞)에 자리 잡은것이 關西地方의 廣州金氏의 發祥이라 하겠다。譜書上으로 보면 四世(諱兌起世)諱美祖가 아들 諱思孝를 데리고 이곳에 定着하여 成家하였는데 그 上系를 보면 族譜上墓地가 不明하고 上系를 設壇하였는데 諱思孝祖는 七子를 두시니 諱貴仁公 貴貞公 貴綱公 貴品公 貴文公 貴雍公 讓遜公이다。諱思孝祖는 官職이 軍功資護軍으로서 當時 平安道民으로서는 官職이 不許되었던 社會制度에서 鄉民의 推仰을 받았으며 또 八世 諱宙祖는 壬辰亂時 宣祖大王께서 義州로 蒙塵當時 御駕가 檜木里를 지나실때에 軍糧米三百石을 自進奉納하여 憂國表情을 다하여 後日에 壬辰軍功資護軍의 官爵을 받아 家門을 빛내시었다。또 公의 아들인 諱乃仁祖는 老江僉使이며 十世 諱秀南祖는 戊午年 姜弘立將軍이 明國의 政清要請에 應하여 現滿州瀋陽遼河清旌征伐時 弘立이 投降捕虜가 되게 됨으로 獨自恥辱을 不服脫出하여 歸國함으로 朝廷에서 그 忠節과 勇猛을 嘉賞하여 特命으로 武科를 叙授하시고 秋披萬戶가 되시어 忠孝의 家門으로 더욱 빛났다。또 十三世 諱鼎輔 月谷公은 當時 平安道民에게는 賤民視하여 科擧을 주지않아 官職은 勿論 初試한장 못한 國法의 差別待遇가 不公平함을 恨嘆하시어 열두번 上疏를 올려 科擧制度를 允許받아 平安道民의 登龍門을 열어주시기도하고 公은 平安道民으로서는 처음으로 科擧에 應試하여 三等合格으로 進士가 되시었다。公을 追慕하는 後輩들이 文廟에(檜木里月谷齋後庭에 月谷祠가 있음)公을 모시고 春秋로 祭享을 지냈다。그리고 十六世에 至하여는 扈大한 血族으로 繁榮하여 十八個派로 分派되었는데 數千餘戶에 達한 大宗族을 이룬것이다。北韓에 많은 血族을 두고 越南한 우리들은(秀鋒, 德潤, 澤潤, 峯祿, 碩麟) 全國宗親會를 통하여 南韓에도 많은 宗親이 있음을 알게되니 반가운 마음 限量이 없으나 族譜를 가지고 오지 못함을 恨하는 차에 國立圖書館에서 鐵山系의 族譜五卷한 秩을 發見 復寫 入手하게 되니 先系을 알 수 있게 되었다。그러나 中始祖(落鄉始祖)諱兌祖의 由來가 探究되지 못하고 있으니 早速히 祖國統一이 되어 主로 黃州, 德川(秀海公派)黃海道殷栗八九陵孫 殷軒公 및 玉山公派等等을 探查하여 南北相互間에 血統의 뿌리를 찾는데 全宗親이 專心 注力할것을 千萬仰記 하면서 삼가 序文으로 敢陳하는 바이다。

一九八一年 二月

在京廣州金氏宗親會副會長
鐵山系代表

金 德 潤